

\* 2005 무대 지원사업 선정작 / 2005 제4차 사랑티켓 참가작\*

# EN LA ARDIENTE OSCURIDAD

## 타오르는 어둠속에서



# 盲

신은 우리에게

멀리있는 사물들을 감지하는 그런 능력을 주지않았어.

단지그이유만으로 우리는 항상 밖에서 사는 자들 밑에 있지.....

안토니오 부에로 바에호 작/ 이성규 연출 · 재규성 최성우 기획/ 안윤희 조연출

2005. 8.13(土)~31(水) / 액터스소극장

\* 평일 7시30분 / 토·일 4시30분, 7시30분(월 공연 無, 광복절 有)

\* 전화문의 : 051) 611-6616 / 016-544-9896 (단체 예약 환영)

\* 인터넷 예약 문의 : <http://cafe.daum.net/actorsplay>



연출/재구성  
이성규

새로운 사람들과의 작업은 어렵지만 반면 흥미로운 일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액터스 소극장에서 서의 작업은 아직도 태동 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작업 인력의 구성. "연극", "집단", "작업"에 대한 개념이 서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올 한해 그러한 기초 작업이 끝나면, 양성된 인력으로 분명한 작업 방향을 설정 할 것이다. 이번 작업에 참여하여 고생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소망해 본다.

작가  
안토니오 부에로 바예호  
(Buero Vallejo Antonio, 1916~2000)



1916년 9월29일 스페인 과달라하라에서 태어난 작가는 학생시절 문학에 재능을 보여 많은 문학상을 수상하긴 하지만, 그는 미술에 관심이 더 많아 예대 입학에 위해 마드리드로 간다. 그러나 1936년 스페인 내란이 발발하자 그의 아버지와 형은 총살당하고, 그는 공화정부군에 가담한 혐의로 1939년 투옥되어 사형 선고까지 받는다. 8개월 뒤 사형이 면제되지만 1946년이 되어서야 가석방된다. 이때 그가 직접 겪고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은 이후 그의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과 상황으로 형상화되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는 바탕이 된다. 희곡에 대한 그의 관심은 감옥에 있을 때 싹트기 시작하여 출옥한 후 미술을 뒤로하고 본격적으로 극작품을 쓰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1949년 마드리드 시청이 주관하는 로페 데 베가 상 공모에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와 「어느 계단의 이야기」 두 작품을 응모 하는데, 이 과정에서 두 작품은 모두 결선에 올라 상을 받게 된다. 그는 주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믿음의 바닥에 깔린 불안감을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안토니오의 가장 큰 관심은 인간과 그들의 비극적 삶이다. 작가의 희곡 세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는 사실주의 성향이 짙은 작품들로서 내란으로 인하여 단절된 과거와의 재 연결을 바라는 작가의 소망이 반영되고 있고, 또한 인간이, 주어진 문제에 대한 중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작품들이다. 제2단계는 역사적 사실에 소재를 둔 극작품들이고, 제3단계는 사회적 정치적 특성들을 감옥, 고문, 폭력주의 등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보다 나은 세상이 존재하리라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작 품 - 「오늘의 축제 Hoy es fiesta」 「산 오비디오의 음악회 El concierto de San Ovidio」 「채광창El tragaluz」  
「꿈을 엮는 여자 La tejedora de sue os」 「민중을 위한 몽상가 Un so dor para el pueblo」  
「발미 박사의 이중 이야기 La doble historia del doctor Valmy」 등

만일 우리에게 얼음과 같은 명징한 意識이 있다면.....  
불타오르는 理想이 있다면.....  
관객들도 어둠 속에서 함께 타오르리라.(몽상)

## 타오르는... 즐거리

장애인 학교에 모여 사는 선천적 시각장애인들은 학교가 마치 이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자신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편안하고 자신감에 찬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길성이라는 학생이 전학을 오면서부터 이 학교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데 길성은 학교 안의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상징인 지팡이 버리기를 거부한다. 이는 그가 자신의 실명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 학교의 모범생이자 학교의 교육목표인 “철의 정신”을 대표하는 태훈과 길성과의 알력이 시작되고 길성은 “즐거움으로 중독 되어 있는” 학교의 생활에 저항하게 된다. 점차 많은 동료들은 자신들이 맹인이 아니라 단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란 표현으로 자신들의 불행한 처지를 잊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지난날의 자신들에게 한계를 느끼며 방황한다. 또한 태훈의 애인인 수정마저 길성의 편으로 돌아서게 되고 사랑하는 여인과 동료들로부터 소외된 태훈은 마침내 길성을 사고로 위장해 살해하게 된다.

##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의 悲劇

### 이 작품에서의 비극적 삶이란?

원초적으로 한계를 지닌 인간의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며 살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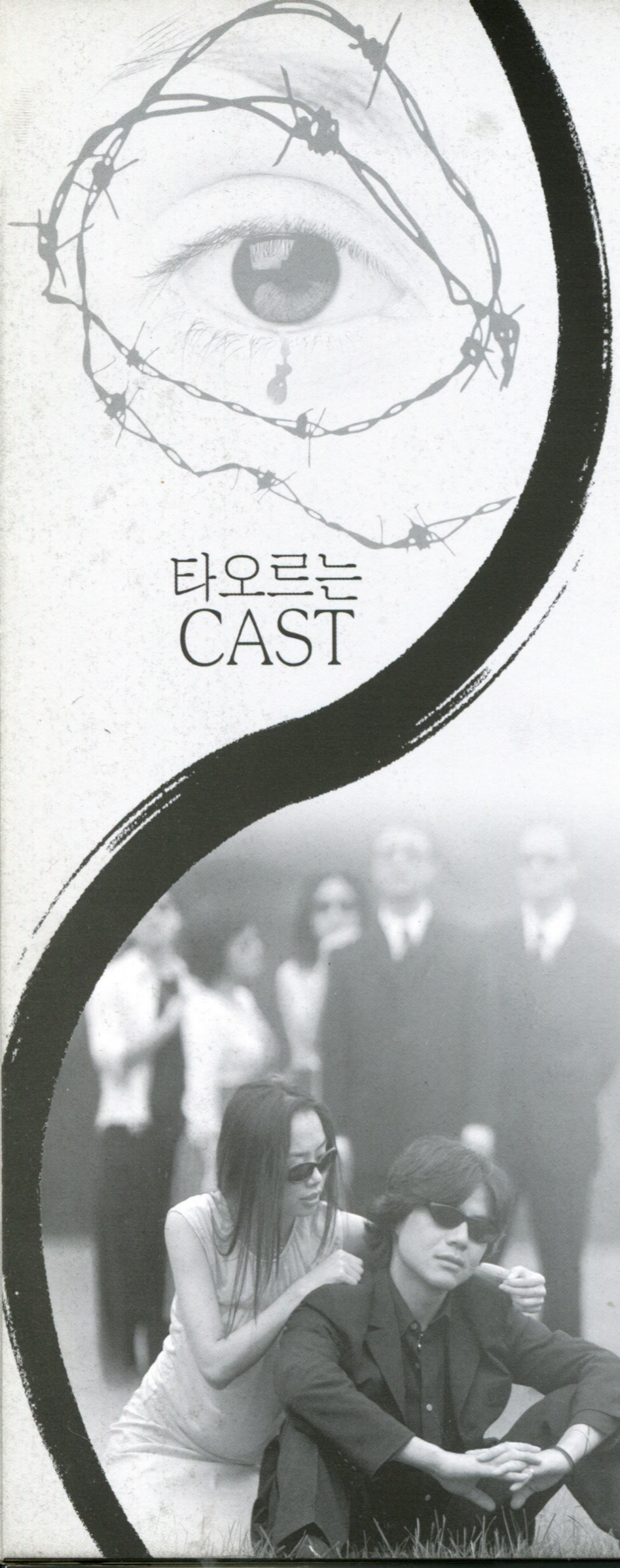
안토니오 부에로 바예호는 작품을 통해 자아실현, 자유에 대한 열망, 사랑, 그리고 내면의 갈등을 보여줌으로써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고자 한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결속된 존재이며,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와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작품 속에서의 맹인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빛은 희망과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행동을, 어둠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발전 없는 편안한 삶에 안주하려는 자들을 상징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거나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지만,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성공하지 못하므로 비극적이지만 타인에게 확고한 희망을 갖게 하므로 희망적 비극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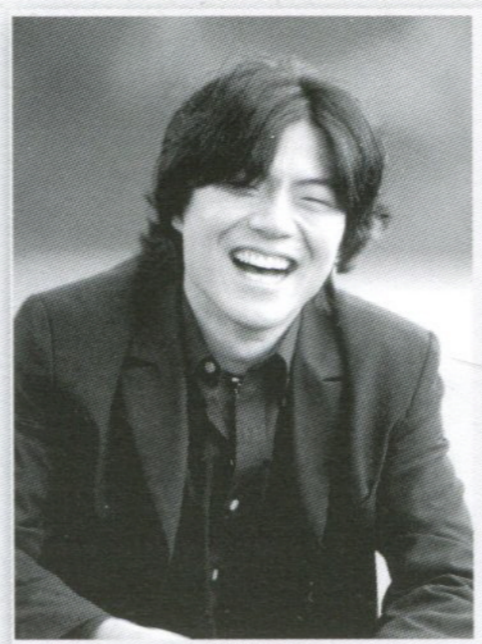
인간은 현실에 쉽게 안주하기보다는 진정한 자유와 진실을 찾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이를 극복할 경우에만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희망적이고 가슴 뭉클한 작품을 통해 인간은 한계가 있음을, 그러나 극복하려는 의지가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盲人의 어둠속에 있고, 우리는 우리들의 어둠의 盲人이다!

부산을 대표하는



타오르는  
CAST



백길성



김태훈



이수정



김환희



오정국



박창희



하명호



류혜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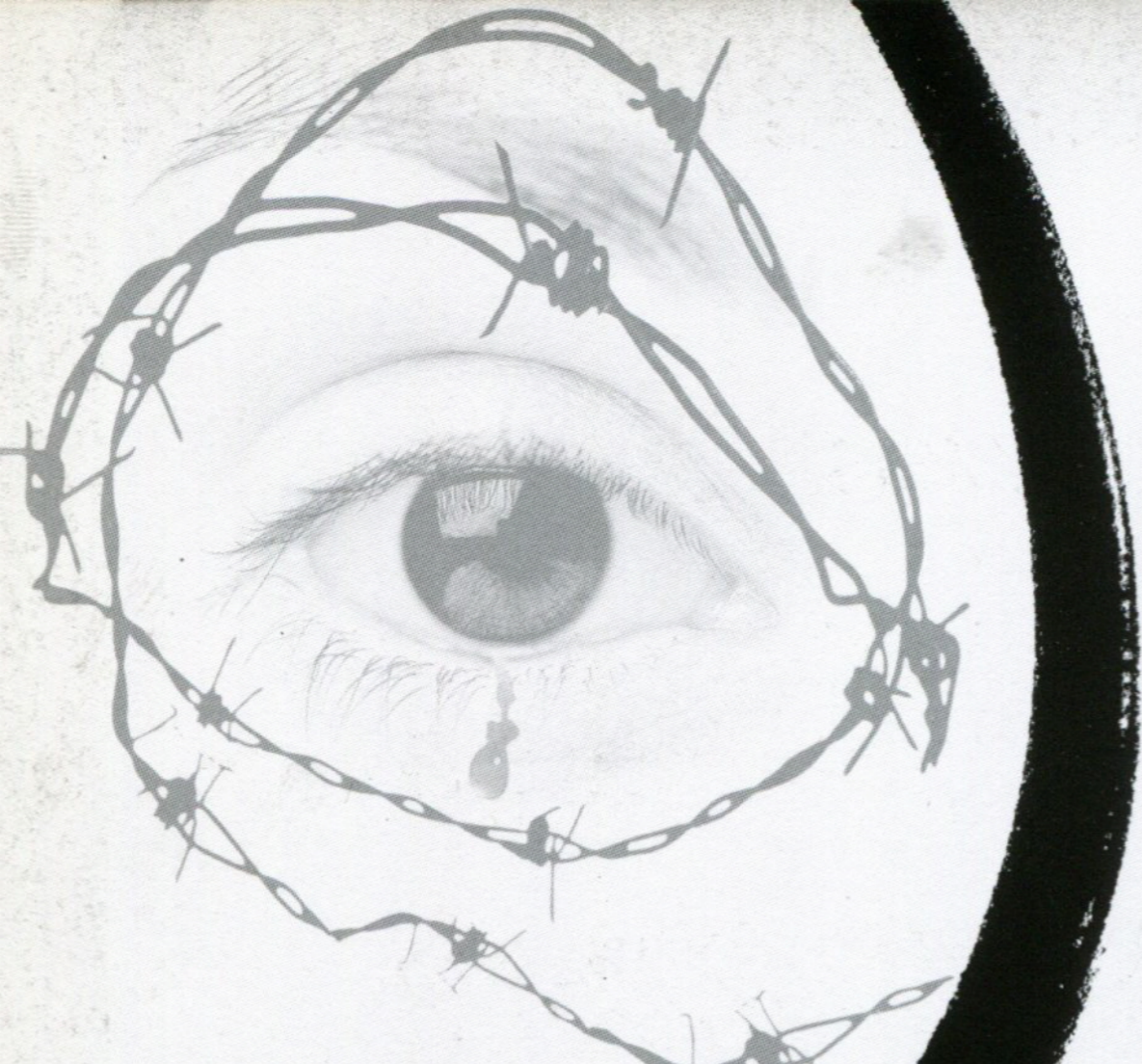
정성아



여의주

타오르는  
CAST





# 타오르는 STAFF



기획 / 최 성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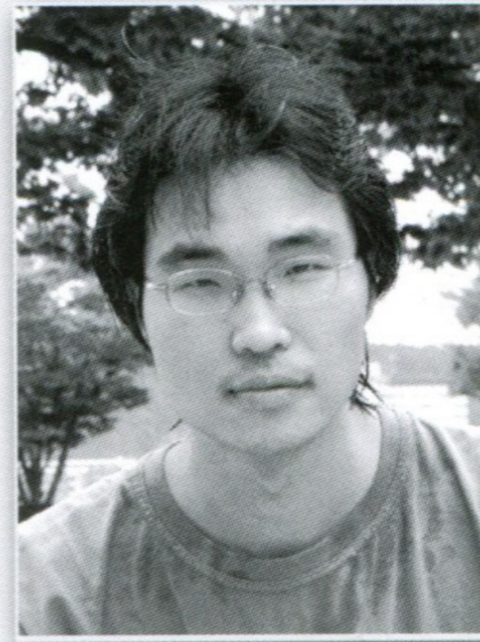
조연출 / 안 윤 희



무대감독 / 백 권 집



조명 / 김 도 읊



음향 / 노 은 석



사진 / 김 도 웅



**“부두연극단과 함께 할 새 식구를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 연기 및 스텝)

새내기 단원은 소정의 훈련과 워크샵 공연을 통해 극단의 단원이 됩니다.

**“부두연극단의 든든한 관객회원을 모집합니다.”**

회원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회원 신청은 다음 카페나 입장 시 극단 가족에게 문의 하세요.

- 도움 주신분 -

생탁 김석웅  
(무대 자문)

김민관  
(포스터 디자인)

정영도  
(인쇄)

\* 협 찬 \*

**OUTBACK STEAKHOUSE**

(남천점)

051) 623-9781

**헤어콘서트(양정)**

원장 김지은

051) 862-5088